

##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국제교환입주 작가 권기범 귀국 보고展

- 전시일정: 2006. 4. 11 (화) ~ 4. 18 (화)
- 장 소 :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 Opening: 2005. 4. 11 (화) 오후 5:30
- 작가와의 대화 - Memory on Xiamen : 4. 11 (화) 오후 4:00 (스튜디오내 전시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김윤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지난 해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3 개월 간 교환 입주해 작업해 온 권기범의 귀국 보고전을 4 월 11 일 (화)부터 8 일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05 년 상반기부터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주작가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새로운 작업동기를 부여하고자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당 해년도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유럽 및 아시아 등지의 우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작가에게 작업실 및 숙소, 생활비 등을 상호호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10 월부터 12 월까지 3 개월 간 파트너 기관에서 작업했던 입주작가 권기범 (중국 샤먼, Vis-a-Vis Art Lab) 은 이번 전시에서 교환입주 기간 동안 경험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느낀 이야기들을 <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한다

권기범 (한국화, 35 세)이 이번전시 <충돌>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대조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이다. 이 전의 작품에서 깨진 유리wa 꽃을 한 화면에 표현하며, 먹판을 대고 손으로 그린 지두화법과 기하학적인 선, 색채 면을 대조시키는 작업을 통해 '인공과 자연', '계산과 우연' 사이의 관계를 실험해 왔던 권기범은 이번 전시에서 중국 샤먼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기간 동안 유럽 등지에서 모여든 전 세계의 젊은 작가들과 작업한 공동 프로젝트 'CHAT AND CHAT 2005\_SCENE between Europe and Asia', 그리고 도시 중심에 위치한 중산로(中山路)의 대형스크린 영상물 상영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의 화면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 이미지를 충돌시키는 이전의 방식을 현란한 동영상 편집을 통해 더욱 극대화한다.

4 월 11 일에 있을 '작가와의 대화-Memory on Xiamen &Arnhem'에서 두 작가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직접 대중에게 소개할 기회를 갖는다.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하며 스튜디오의 작가 작업실 또한 개방되어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